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 의 록

일 시	2026. 9. 29.(화) 14:00 ~ 15:30	
장 소	2층 상황실	
참석위원	8명	신언환 위원, 김미재 위원, 김성민 위원, 김영희 위원, 여종구 위원, 이상길 위원, 정영옥 위원, 전종보 위원
회의내용	· 위원소개 · 위촉장수여 · 구청장님 인사말씀 · 임시위원장 선정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호선 등 6개 안건 의결	
회의결과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 비공개 ·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결정 : 월 150만원(현행유지) · 2027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 : 15% 인상 · 2028~2030년 월정수당 인상범위 결정 : 공무원 보수인상률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식 결정 : 공청회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	

우리 구 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2026. 10. 2.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은 ○○○입니다.
오늘 의정비 심의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간사는 성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팀장 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시위원장 그럼 의안 번호 제1호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시위원장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진행하실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교수님을 추천 드립니다.
임시위원장 다른 분은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신지요?
○○○위원 네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위원 네 재청합니다.
임시위원장 ○○○ 위원님께서 추천되었습니다.
○○○ 위원님을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법무팀장 선출되신 ○○○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감사합니다. 삼생의 영광으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비 심의를 위해 모이셨고요. 오늘 합리적으로 동구의회의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를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가 원만하고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회의 공개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사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제안 설명)

위원장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거수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지를 제가 먼저 물어봐야 되네요.

거수로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전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원 다 동의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우리가 개인 정보에 대해 되게 민감한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개되는 것에는 거부감은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구요. 회의 공개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위원장

그러면 전원 다 비공개로 하신 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 안 들었는데 비공개를 원하는 위원도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법무팀장네, 한 번 더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비공개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저도 포함이죠?

의회법무팀장네.

위원장

그러면 전원이 다 비공개를 원하시는 결로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상 발언자 성명 공개 여부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회의록상 성명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그냥 땡땡땡 위원으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회의록상 발언자 성명 공개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위원장

네 한 분도 없으십니다. 회의록상 발언자 성명 비공개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위원장

네 전원 비공개를 선택하셨습니다. 표결 결과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회의록상 발언자의 성명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심의 결과 회의는 비공개 회의록상 발언자 성명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심의에 앞서 의정비 심의 위원회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분께서는 회의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법무팀장 예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설명)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된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번 의정활동비 수준이 지금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또한 동구 전체 예산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지금 1,800만 원 지금 돼 있잖아요. 1,800만원 의정활동비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시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도와 2026년도 조례 안건을 보면 동구 구의원님들이 5개 구·군중 제·개정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번 연도에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2026년도에 발의 안건이 총 10건이고 지난해에는 30건 중 28건이 가결됐고 1건이 보류되고 1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이 단순한 의정활동비를 올리냐 마느냐를 떠나서 구 의원님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현장을 뛰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소외된 지역 없이 민원을 살피고 조례 제·개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저는 연간 1,800만원의 의정활동비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원이 늘어난 만큼 책임도 더욱 무거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단순한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더 열심히 뛰고 있구나 라고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으로 반드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정치부 기사를 한 십몇 년을 했는데 처음에 기사가 됐을 때 유급제로 거의 바뀌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무급제였는데 사실 우리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떼거리라고 그러죠. 기사거리를 찾을 때 기초의회나 시의회 의원님들을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 입장에서 사실 답답한 부분이 있을 때 의원님들을 찾아가거든요. 기초의원님들을 찾아가는데 의원님들이 사실 바빠요.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호소하면 의원님들이 그 동네에 자기 지역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기사거리를 많이 잘 찾는데 이제 의원님들 입장에서든 힘이 내려면 어느 정도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미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좋은 의원분들이 도전을 해서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제가 얘기했었는데 동구가 제일 낮아요.

그 결정 기준은 제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몇 차례 나왔었지만 보통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추더라고요.

또 뒤에 공청회, 여론조사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제 생각에는 3.5%에

맞춰서 인상하면 좀 더 좋은 분들이 더 많이 도전을 할 거고
위원님들도 좀 더 신명나게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그 지금 안전번호 제3호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까지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좀 방대하게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최고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3호 안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제4호 안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3호와 4호를 겹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3호 안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으니 이것만 심의하고 다음 안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수용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3호를 심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법무팀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 설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결정하는 의정활동비는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심의안은 간사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1안은 현행과 같이
1,800만원으로 지급하자는 것, 2안은 1,800만 원이 과하면 감액을
하자는 안입니다.
이 지급액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 질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심의위원회를 했을 때도 이 안전이
올라왔었는데 4년마다 이 안전이 계속 올라오는 건가요?

의회법무팀장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4년마다 계속 하게끔 되어 있어요.

○○○ 위원 네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 타 지역은 모르겠지만 울산에
있는 타 구·군은 현재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은
그냥 현행대로 지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그러면 1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원 찬성하셨으면 2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러면 거수로 하여 재적 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하여 1안으로
의결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 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그러면 의안번호 제4호가 오늘의 가장 뜨거운 감자일 것 같은데요.
의안번호 제4호 2027년도 월정수당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간사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제안 설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월정수당 2027년도 월정수당에 대해서 인상, 동결,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심의안 1안은 2026년도 월정수당 대비 인상, 2안은 동결, 3안은 인하하는 안입니다.

지금 간사께서 설명해 주신 것과 회의 자료 9페이지 의정비 결정 시 고려 사항 등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네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동구가 의원 1인당 주민 수 대비해 보면 타 구·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타 구·군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공청회를 열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도 있고해서 공청회 절차가 없는 공무원보수 인상율 3.5% 규정을 계속 적용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동구가 월정 수당이 울산에서 최고 꼴찌입니다. 의원들 활동 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월정 수당이라고 봐야 되는데 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의원들에게 바라고 우리가 의원들한테 어떠한 활동을 원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회의 전에 간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중구와 울주군은 전년도 대비 13% 인상을 단행 했습니다. 제가 시민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타 구군에 저희 위원들이 또 나가 있거든요. 그쪽에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의견들이 남구 기준으로 많이 맞춘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현재 남구가 수당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이번에 또 인상하겠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인상폭까지는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최소한 지금 중구와 북구 그다음에 울주군 이쪽에서 인상을 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에게 그만큼 월정 수당을 줄 테니 활동을 하라 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주는 거거든요. 4년마다 심의회가 열리면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 인상해 왔던 것은 공청회의 번거로움 없이 하자 라는 의견들이 대부분 위원들 쪽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 편의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시대에 발 맞추어 타 구·군과 맞춰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상세히 검토 하셔서 11페이지에 2023년도 기준에 최소한 우리가 맞춰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깊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의안번호 제4호와 관련해서 인상 하는 데 동의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동결할 것이냐 인하할 것이냐 우선 결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3개의 안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2027년도 월정수당에 대해서 1안인 2026년 대비 인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 8표가 나왔으므로 2안과 3안은 넘어가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인상안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도 월정수당 대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제 저희가 인상률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결정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7년도 월정수당이 2026년 대비 인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안건 자료 페이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참고하셔서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몇 퍼센트 인상으로 결정하실지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 인상 결정 방법에서 궁금한 것이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은 2026년 대비 2027년도 인상률은 자유롭게 여기서 2027년도 인상률을 정하면 이게 2028년도 부터 2030년도까지 전혀 관련이 없겠네요.

의회법무팀장 아니요 관련이 있습니다. 2027년도를 자유롭게 정해놓으면 그 기준에서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거니까 연관은 됩니다.

위원장 네 지금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위원으로서 제가 여기 의정비 심의를 10년 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였는가요? 그때 저희 동구가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당시 의원들이 합심을 해서 그때 자체적으로 동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매듭을 못 푼 채 거의 한 10여 년 넘게 오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구·군에 비해 수당이 적지 않은가 하는데요.

그분들한테 이게 지금 합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 들어서 물가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아득하게 넘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인상률만 적용해도 사실상은 좀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은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위원회에서 구 의원들에게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어떠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위원장을 맡고 개인 의견을 너무 강하게 피력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퍼센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3.5%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한 분 계셨고요. 한 13%까지 해서 남구 수준에 맞추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료 11쪽에 보시면 남구와 동구를 2023년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월정수당이 차이가 월 39만 860원 연간 469만

320원 정도 납니다. 금액 차이를 비교 해서 남구의 현재 월 270만 원 수준에 맞춘다고 하면 안전지 7페이지의 퍼센테지로 따지면 9%에서 9.5% 정도의 인상 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쪽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우리가 3.5% 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구민 공청회 등의 절차는 생략하는 쪽으로 해서 의견을 주신 거고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았던 시절이 있었고 동구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지고 주민 이탈로 인해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의원들이 스스로 월정 수당도 동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4년 전에는 그만큼 재정이 확보 되면서 3.5% 공무원 인상률에 맞춰서 인상을 해줬던 말이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이후에 차이가 많이 나고 다른 구·군과의 격차도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 의원들의 사기 진작과 좀 더 나은 의정 활동을 바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독려 차원이죠. 2023년도에 남구 월정수당에 최대한 부합하는 수준으로 맞춰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9%에서 9.5% 이 안을 가지고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렇게 정하고 난 뒤에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부될 수도 있나요?

그건 제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위원장 공청회를 여는 게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거니까 거기서 거부가 되면 거부되겠죠.

○○○ 위원 구속력이 있네.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투표를 해서 만약에 거부 쪽이 더 많으면 다시 심의를 해야하나요

위원장 다시 심의해야죠

○○○ 위원 저도 이제 위원님처럼 9.5 %로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남구하고 수준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공청회나 여론 조사에서 혹시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까 봐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한 사례가 있나요?

의회법무팀장 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3년 전에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오를 때 한 걸로 있습니다.

○○○ 위원 그때 어떻게 됐어요? 찬반 어떻게 됐어요?

의회법무팀장 통과됐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구 자료가 2026년도 자료 맞나요?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아서요

○○○ 위원 이게 뭐냐면 11페이지에 2023년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인상됐는데 인상되는 금액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의회법무팀장 밑에 2026년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 그러면 밑에 부분이 290만원 대면, 저희가 10%로 인상을 해야 된다.

의회법무팀장 계산 하실 때 11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표의 남구 월정 수당 보이시죠?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금액을 따지면 옆에 안전지 7페이지에 증감률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증감액 그래서 3,480만 원 수준으로 따지면 17%로 가야 되는 거네요.
올해 남구 수준으로 간다고 그러면 17%까지 올라가야 돼요.

○○○ 위원 남구도 올린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예상하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도 기존에 의정활동비가
이만큼 인상됐으니 여기에 따른 부분은 우리가 좀 맞춰주는 것이
좋겠는데 남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5%를 했다 아니면은 7%를 했다
그걸 우리가 예상해서 우리도 그것까지 맞춰 인상 폭을 정하는 것은
솔직히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도 현재의 기준을 삼아서 이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더 많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기준이면 17% 인상이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처음 오늘 참석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동구 산정 기준이 주민 수량 재정 자립도랑 총액 예산 보수
등이 기준이 되는데 동구가 주민 수도 남구 대비 적고 재정 자립도도
적고 대부분 적은 걸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동구의원 의정활동 실적은
동구 것만 나오는데 남구 것도 일단 명시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남구랑 맞추면 오히려 우리가 더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1차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월정
수당이 월등히 적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저희가 더 많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고요.
그리고 보면 남구의 의정 활동 등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또 두 번째는 계속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동구도 그렇게 했고 다른 시·도 도 똑같이 공무원 인상률만큼 몇 년
동안 계속 해 왔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다 공무원 인상률만큼 해마다 올린 거였던가요?

의회법무팀장 다른 지역도 대체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 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가 정하는 데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가
올리면 중구랑 북구, 울주군에서 다 같이 올리면서 무조건 올리는 식이
되는데 그게 약간 비율이 맞아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 재정이라든지 주민 수라든지 실적에 비율이 맞아야지 금액을
맞춰버리면 우리가 더 높은 금액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 네 의견을 좀 드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중구하고
울주군하고는 이미 의정비 심의가 끝났습니다.
심의가 끝났는데 13% 인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다 남구였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구의 의원 정수는 동구보다 인구 대비로 의원을 뽑다 보니 의원
수도 저희보다 많죠. 예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 1인당 주민 수를
보면 차이가 한 640명, 600여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700명까지는
차이가 안 납니다.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군도 기준점을 남구로 잡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은 공무원 인상률 3.5%에 따라서 했다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울산은 울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타구·군은 예산이 좀 적다 보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4년 전에도 위원님도 계시지만 예산이 크게 인상되지 않다 보니 3.5% 인상률로 그냥 그대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가 상승도 있고 의원들에게 좀 더 나은 의정을 부탁하는 의미에서라도 의정비 기준을 우리가 나름대로 잡아서 공무원 인상률 3.5%라고 해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좀 잡아보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의견입니다.

안이 나왔는데 표결에 붙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인상률이 17%인가요?

위원님께서 남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는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 위원 네

위원장 그럼 기준점으로 17% 안이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 위원님께서 17%는 보다는 조금 낮은 안으로 가자는 의견이신데, 그러면 몇 퍼센트라고 하면 될까요?

○○○ 위원 딱 정해야 되는 거였어요.

위원장 네 퍼센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표결에 붙일 수가 있어서요

○○○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는 몇 퍼센트 올렸다고요?

의회법무팀장 중구는 13%요. 그리고 울주군도 13% 결정됐고요.

위원장 지금 이게 퍼센트를 가지고 하면 퍼센트의 오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퍼센트가 팍 튀긴답니다.

○○○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중구하고 울주군 같은 경우 중구는 저희하고 차이가 월 11만 원 정도 나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16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퍼센티지를 남구의 기준점을 맞추다 보니까 13% 13.5%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남구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는 17%까지 맞춰야 된다는 기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 위원 저희는 물론 의원님들 수당을 많이 올려주면 그만큼 활동 범위도 넓혀 가실 거잖아요.

진짜 소외된 지역 구석구석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가실 건데 저는 많이 높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7%하고 13.5% 13% 하고 비교했을 때 동구 주민들이 과연 다른 데는 13.5% 올랐는데 13% 올랐는데 동구는 17%가 올랐다.

동구 재정이 안 좋은데 왜 이래 많이 올렸을까 의심을 갖지 않을까 저는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 동구가 낮다는 것을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저희들만 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3.5%입니다.

○○○ 위원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심의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가볍게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은 어차피 공무원 인상률 3.5%를 넘으면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 동구 상황을 보면 웬만한 구민들도 알다시피 재정 자립도라든지 주민 수 감소 등 안 좋은 여건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월정 수당 결정시 고려 사항 중에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물가 인상률은 제가 알기로는 한 3%쯤 넘어가는데 그 중에 통신비하고 갑자기 많이 올라온 이런 비용이 한 30% 정도 포함이 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 정도로 하면 나중에 공청회를 거칠 때도 주재하시는 위원장님께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아무래도 여론을 무시 못 하니까 10% 선에서 공청회에 붙여서 자료를 준비해 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있으신가요?

○○○ 위원 저는 퍼센티지를 말하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적었던 것은 인정을 하고 또 중구도 13% 올렸다고 하니까 한 15% 정도는 적당할 거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위원장 지금 안이 4개가 나와 있는데요.

○○○ 위원 저도 수정해서 15%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면은 13.5%에서 15%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안이 3개로 정리는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인상으로 가면 10%나 17%나 말하기 어려운 건 거의 비슷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동구 주민들에게 이걸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될 텐데 이 부분은 구청에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 3개 안 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하죠.

○○○ 위원 지난번에 동구의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하지만 전임 구청장님이 임기 말에 재정을 최대한 많이 다음 재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본인 선거 때문에 남은 재정을 최대한 다 끌어서 활용해 쓰고 이런 경우가 4년마다 반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남구가 마이너스 400억입니다. 4백 몇십억입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동구도 얼마 전에 공무원들 3개월 수당도 지급 못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주민 토론회를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다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게끔 의원들이 임기 말 6개월이나 1년 전에는 과하게 지출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얘기들을 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월정수당을 인상할 거면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를 먼저 정하면서 퍼센티지를 좀 가닥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를 딱 정해서 어느 구를 기준으로 잡으면서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퍼센티지를 정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그러면 이 의견을 수렴하면 기준점 17%로 잡아야 되겠죠.

남구를 기준으로 따지니까요. 그럼 남구 기준 17%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요?

○○○ 위원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과반으로 결정해도 될까요?

의회법무팀장이것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7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그러면 기준점인 남구 기준으로 해서 17% 인상 기준으로 삼는다, 아니다로 하겠습니까. 아니다에 동의를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 위원 남구는 아직 올릴 규모를 모르니, 더 오르겠네요

위원장 네 아직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맞춰도 우리가 낮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위원 17% 인상이라고 하면, 다른 데 비해 17%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주민들도 보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다니시는 곳마다 진짜 재정이 어렵다 하시는데.. 이렇게 17% 인상은... 그러니까 돈을 더 드리고 돈을 따오라고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주면서 뭐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줄 건 주고 할 건 해야죠.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남구 기준 17%에 맞춘다는 것으로 지금 동의를 구해 볼까요?

남구 기준 17% 안으로 저희가 결정을 한다는 데 동의하시면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이 동의하여 부결이네요.

의회법무팀장 7분이 동의해야 합니다.

위원장 17%를 안 맞춘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위원 15%요

위원장 예 그럼 15%는 다시 또 표결에 붙일 겁니다. 그러면 17%는 부결됐고요.

다시 나온 게 15%였는데 이 사이 숫자는 없으시겠죠

위원들 예

위원장 15%에 동의하시면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명이 동의하여 가결된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다면 인상률에 대한 표결을 지금 한 거고요.

월정 수당 대비 15%로 인상한 3,429만 6,588원 결정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그러면 8분 다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셨으므로 15% 인상된 3,429만 6,588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입니다. 2028년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 결정의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2028년부터 2030년도 월정수당 적용 기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빠르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사 제안 설명)
-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 월정 수당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겠습니다.
간사가 설명해 준 바와 같이 1안은 월정수당을 전년도 월정 수당과 동일하게 동결하는 거고요.
2안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 3안은 보수 인상률만큼은 아닌 일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3안을 선택을 하셨을 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몇 퍼센트 낮게 할 것이냐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적용할 월정수당 기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 3안은 감액입니까?
- 위원장 3안은 감액이라기보다는 부분적 증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감액은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안이나 3안을 선택하면 현실적으로는 감액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 위원 이제 바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1, 2, 3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안은 동결이고, 2안은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동일하게 인상할 것이냐 그다음에 3안은 그보다 일부만 반영해서 몇 퍼센트만 인상할 것이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2027년은 이만큼 2028년은 이만큼 각각 정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면서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네 그럼 결정을 하겠습니다. 2028년도 월정수당을 1안 전년도 월정수당과 동일하게 동결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십시오.
예 없으신 걸로 알고요.
제2안 보수 인상률을 전액 반영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그럼 전원 들었기 때문에 3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셨으므로 2028년도 월정수당은

2027년도 월정수당에 2027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2029년 2030년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예

위원장

그럼 2028년, 2029년, 2030년 월정수당은 2안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이제 인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안번호 제6호 주민 의견 수렴 방식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간사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제안 설명)

위원장

네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사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공청회 방식과 여론조사 방식이 있는데요.

회의 자료 5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둘 중에 비용은 어디가 더 많이 들어요?

의회법무팀장 비용은 여론조사 방식이 더 듭니다.

○○○ 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여론 조사만 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소통의 부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공청회를 하면 공청회에서 왜 인상되는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토론했던 내용이나 어디를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가능한데 그런 부연 설명 없이 여론 조사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염려했던 부정적인 어떤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위원 저도 인상을 결정했으니까 주민들과 소통하려면 공청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전화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소통의 절벽에 부딪치게 됐을 경우에 인상에 대해서 당연히 호감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저도 공청회를 열어 소통의 장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

전화 여론조사는 성실하게 대답 안 해줘요.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청회와 여론조사 방식에서 일단 지금 의견은 대부분 공청회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청회 방식에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위원장 네 전원 다 공청회로 했기 때문에 공청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공청회 방식이 결정됐기 때문에 14일 전까지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 후 10월 19일 오후 또는 10월 20일 오전에 공청회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다 참석하시는 게 낫겠죠.
지금 19일 오후 또는 20일 오전 중에서 언제가 좋을까요?
19일 오후에.. 네 오후면 몇 시 쯤 좋을까요?

의견 조율 중

위원장 네 그럼 공청회는 19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걸로 하고요. 제2차
회의는 23일 오후 4시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난거죠?
그럼 위원님들, 심의 의결서에 다 서명을 해 주시고요.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